블루노트에 근거한 알털드 스케일의 기원

김대승*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pentatonic@chungwo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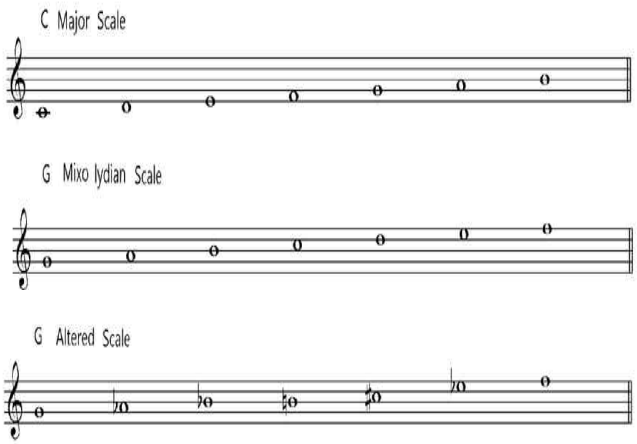
The Origin Of Altered Scale Based On Bluenote Concept

Dae-Seung Kim*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Blues음악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장소에서 연주되는 음악장르로서 Jazz를 포함한 소위 실용음악분야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토록 강력한 Blues음악의 생명력은 Bluenote에 기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Bluenote와 Jazz음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Altered 스케일간의 연관성을 제시 함 으로서 Blues음악의 중요성을 재조명 하고자 한다.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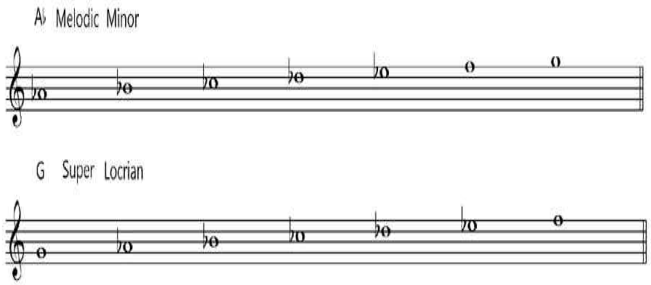
Altered 스케일은 Jazz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 패턴이라 할 수 있는 II-V7-I 진행의 V7과 같이 Dominant기능을 가진 코드에 사용되는 스케일로서 Modern Improvisation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오늘날에는 그 사용 자체가 Modern Jazz를 상징 한다 할 수 있을 만큼 일반화 되어있는 코드스케일이다. 원래 초창기 Jazz음악에서는 Dominant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스케일로서 장음계의 Diatonic음들로 구성된 Mixolydian 스케일이 주로 사용 되었지만 이후 Chromaticism에 심취한 많은 Be-bob연주가들은 조성에 얽매인 Mixolydian 보다는 오히려 반음계의 사용으로 인해 긴장감이 유발되는 Altered 스케일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C Major Key의 Dominant인 G7코드에 Mixolydian적 어프로치가 사용될 경우 코드톤 뿐만 아니라 Natural Tension(9th, 11th, 13th) 모두가 C Major 스케일의 구성음과 일치되어 안정적인 조성감을 가지게 되지만 G-Altered 스케일의 적용은 C Major 스케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Non-Diatonic음들 다시 말해 Altered Tension인 b9th, #9th, #11th, b13th들이 사용됨으로서 강한 긴장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Mixolydian & Altered

이 Altered 스케일이 생성된 근간을 전통 화성학적 논리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Melodic Minor의 일곱 모드중 하나인 Super Locrian에서 유래했다 결론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피상적인 스케일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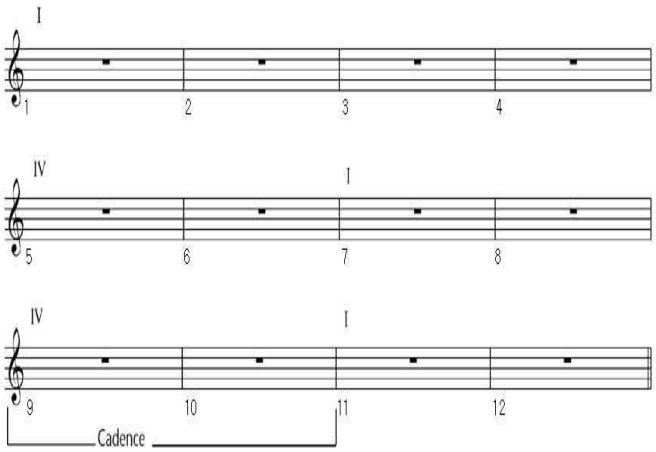
조적 일치만으로 Altered Sound(b9th, #9th, #11th, b13th)의 본질과 유래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Jazz음악은 Blues를 기반으로 탄생했다"라는 Jazz사의 일반적 사실에 기초하여 Altered 스케일의 생성과정과 Altered Sound의 본질을 Bluenote와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Melodic Minor & Super Locr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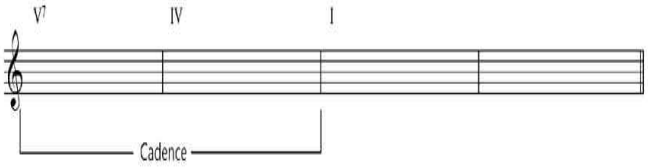
2. 본론

초기 흑인 노동자들의 Blues음악은 12마디 형식에 Tonic(I)과 Sub-Dominant(IV)코드만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까닭에 곡을 마치는 Cadence(9번째와 10번째 마디)부분마저도 IV-I 진행의 아멘종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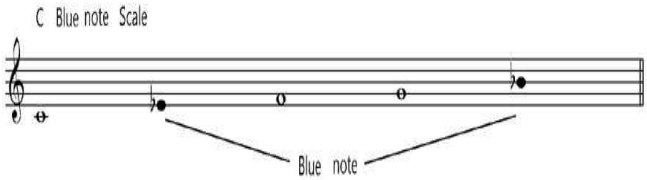
[그림 3] Blues 진행

그 후 근대에 들어 전문교육을 받은 연주가들에 의해 Blues음악이 널리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Blues음악의 화성과 스케일에도 많은 발전적 변화들이 이루어졌고 이 같은 진화는 결국 Blues음악이 Jazz 음악의 주류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초기 Blues음악의 대표적인 화성적 변화로는 V7코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Cadence에 Dominant코드를 사용함으로서 보다 강력한 종지감을 얻고자하는 연주자들의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V7코드의 등장은 이후 Blues음악이 가진 독창성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Bluenote와 필연적으로 결합 되면서 새로운 화성학적 컨셉을 낳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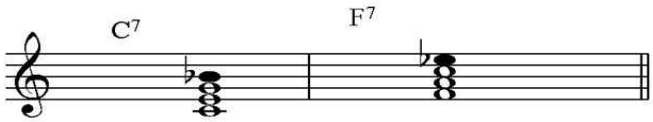
[그림 4] V7의 사용

전통적으로 블루스에 사용되는 Bluenote 스케일은 5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들 Minor Pentatonic 스케일이라 칭하기도 한다. 특히 이 스케일의 구성음들 중 Bluenote라 불리는 b3음과 b7음은 Blues음악의 특징적 멜로디로서 강조되어 사용되는 탓에 화성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림 5] Bluenot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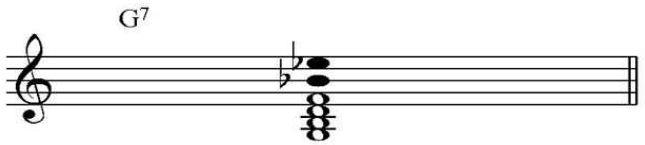
본래 초기 Blues음악의 화성인 I과 IV코드는 3화음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Bluenote가 화성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흡사 Dominant코드 인것처럼 I7과 IV7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화성학적으로 Dominant기능을 가진 코드가 Tonic코드로서 취급될 수는 없는 법이다. 따라서 I7과 IV7의 외형적 변화는 Tritone(3전음)의 생성으로 인한 Tonic과 Sub-Dominant의 본질훼손이 아니라 3화음과 Bluenote간의 화성적 결합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다.



[그림 6] I7 & IV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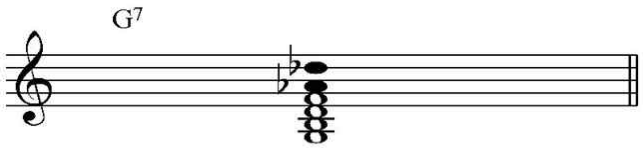
같은 맥락으로 V7코드 위에서의 Bluenote를 살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 Blues음악의 Cadence에 V7코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당시에도 여전히 수많은 연주인들은 Bluenote 스케일을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V7 코드위에서 강조된 Bluenote의 음색은 음악적으로 효과적 이었고 화성적으로도 거부감이 없었다. 결국 이 같은 V7코드와 Bluenote간의 화성적 결합은 Blues의 Bluenote(b3음, b7음)가 Dominant코드의 Altered Tension(#9th, b13th)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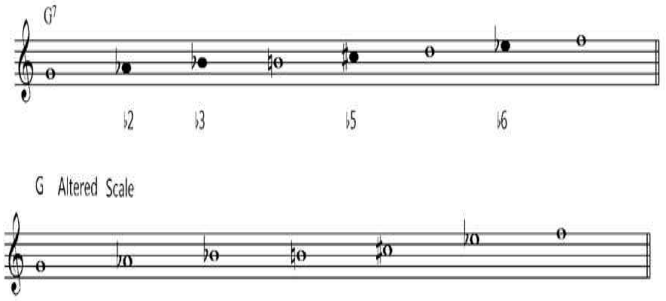
[그림 7] V7(#9, b13)

나아가 선행논문 “Bluenote의 현대적 개념”을 통해 새롭게 Bluenote로 취급되어진 b2음과 b6음을 V7코드에 적용시켜보면 이들 또한 Dominant코드의 Altered Tension(b9th, #11th)으로 사용되어 질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V7(b9, #11)

지금껏 Dominant코드위에 적용된 4개의 Bluenote 음들과 V7의 코드톤 전부를 스케일화 시켜 나열하면 5음을 제외한 구성음 모두가 Altered 스케일의 구성음들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Altered 스케일의 생성과정과 Altered 사운드의 본질에 있어 Bluenote(b2, b3, b5, b6)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 Dominant코드에 대한 Altered Tension의 사용이 Bluenote로부터 태동 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9] Chord Tone+Bluenote & Altered Scale

3. 결론

12마디의 짧은 형식과 I, IV, V코드의 무한반복으로 진행되는 Blues음악은 다른 장르의 음악에 비해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의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랜 세월동안 가장 많은 장소에서 연주되고 있으며 Jazz를 포함한 소위 실용음악분야 전반에 걸쳐 Blues의 영향은 실로 그 크기를 가늠키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다면 Blues음악에 내재된 이토록 강력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것은 바로 전통 화성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Bluenote의 사용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Bluenote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다각적인 연구의 시도들은 훗날 Blues음악의 Jazz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Barrie Nettles, “Harmony 2 Workbook”, Berklee Press, 1995

[2] Gary Campbell, “Expansions”, Houston Publishing, 1988

[3] Hall Crook, “How To Improvise”, Advance Music, 1991

[4] Bret Willmott, “Book of Harmony”, Theory & Voicing, Melbay Publications, 1995

[5] Ron Miller, “Modal Jazz Composition & Harmony”, Advance Music, 1997